

데스크 시국



장 필 수
편집부국장·제2사회부장

얼마 전 ○○보건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들른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며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퇴근 후 광주 시청 선별진료소를 찾아 두 시간 기다린 끝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다음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에선 밀접 접촉자 판단을 위해서라며 두 차례 더 연락을 해 왔다. 보건소 측은 음식점 CCTV와 주문 내역을 통해 동선을 파악한 결과 우리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가기 20분 전에 확진자 일행이 들어왔지만 일정 거리를 확보해 밀접 접촉자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선진국은 속속 일상 회복하는데

2주간 자가격리는 면했지만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 코로나를 제갈할 수 있었다. 두 달 가까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주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누나네 가족도 자주 다니던 동네 초밥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달아 나와 온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확진자 중에 서빙하는 직원도 있어 걱정했지만 백신 접종을 마친 터여서 그랬는지 결과는 음성이었다.

은펜칼럼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

'1박 2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제대로 느끼려면 한 달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어느 여행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여행자가 한 달간 머무르고 싶다는 장소는 어디일까? 놀랍게도 우리 고장 양림동이다. 양림동을 다녀간 여행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오래 머무르고 싶다'였다. 양림동 여행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도대체 양림동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한 달간 머무르고 싶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다. 양림동은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편한 곳이라고 한다. 내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한다. 양림동에는 사직공원을 배경으로 미술관과 갤러리, 카페, 맛집 등이 즐비하다. 게다가 스토리를 가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택, 정음성 생가, 최승호-이장우 가옥, 최홍중 목사-조아라 여사 기념관 등 고택과 기념관이 많이 있다. 모두 우리 역사와 선배들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양림동은 여행자들의 감

기 고



오권중
광주환경공단 광주지원팀장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오르면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고작 2℃ 높아진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2℃ 상승할 경우 10만 5000여 종에 달하는 생물이 멸종하고, 기후 재난으로 인한 빈곤 인구가 수억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업 경영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합친 ESG 경영 패러다임이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과거 수익성 향상에 매몰됐던 기업 활동에서 벗어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지는 취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SG는 2006년 UN의 주도 하에 출범한 지속 가능한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국제투자기관연합체 UN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처음 나온 용어이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

‘위드 코로나’ 시대 언제쯤 가능할까

이처럼 코로나가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감염병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 둔감해진 탓도 있지만 치명률이 이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선언한 덴마크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1136명에 사망자는 2명이지만 한국은 238명 확진에 사망은 1명에 불과하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도 메인뉴스를 통해 날마다 코로나 소식을 접하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기약 없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노래방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광주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집중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선 국가들은 속속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는 추세다. 영국은 접종률 63%를 달성한 지난 7월 19일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세계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싱가포르도 접종률 70%를 달성한 7월에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접종률이 80%에 이르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이들 나라에선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고 입원율과 사망률은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인구 71%가 접종을 완료한 덴마크는 한 달 더 나아갔다. '코로나는 더 이상 중대 질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코로나 방역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를 감기처럼 취급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위드 코로나를 제안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당에 공식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에는 김두관 의원이 경선 후보 여섯 명 공동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것이 관건

위드 코로나는 지금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책 전환이 이뤄지면 우리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빚잔치를 벌이지 않아도 되고, 일반 시민들은 매일 성적표처럼 아들네 확진자 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블루에서도 벗어나 사회 전반이 예전처럼 활기를 띠 것이다. 방역 정책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전제 하에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는 접종률 70%를 완료하는 10월을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bungy@kwangju.co.kr

학교를 양림동처럼 감성 충전소로

성 충전소이다. 팽귄마을의 고무줄놀이그 그려진 벽화 앞에 서면 뛰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낡고 오래된 건물을 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소환된다. 시인 김현승의 마을 양림동은 여행자에게 잠시나마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최홍중 목사와 조아라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동이 다가온다. 요즘 학교에서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한창이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쉼터, 놀이터, 미래 교실, 도서관 등을 새로 짓거나 편리한 환경으로 개조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닌가. 만약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양림동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구조화 사업으로 재탄생한 학교가 아이들의 감성 충전소가 되면 좋겠다. 학교 건물을 부수고 헐기보다는 감성이 꿈틀거리는 재구조화 사업 말이다. 기존의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리모델링하여 역사와 편리함이 함께 공존하는 아이들의 감성 충전소 역할을 하게 하자. 오래된 학교의 담장에는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벽화가 어울릴 것 같다. 운동장 빈터에 신기한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운동장 주변 오솔길은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에게 좋은 안식의 공간이 될 것 같다. 오솔길 옆에 예쁜 의자가 있고, 의자 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가 적혀 있으면 더욱 좋겠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담하고 예쁜 숲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풍경을 달면 바람이 살짝 부는 날 맑고 청아한 풍경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제 복도도 가보자. 실제로 본 체험담을 이야기하면, 분홍색·파란색·흰색·보라색 등 여러 색깔로 복도를 만든 학교가 있었다. 그곳에 아이들의 협동 작품이 걸려있었다. 맘을 뻗을 어린 아이들의 작품에서 훌륭한 예술가의 작품 이상의 감동을 느꼈다. 아이들의 꿈을 조각한 작품을 전시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했다. 교실도 바꾸어 볼까? 창문 아래에는 화분들을 놓아 보자. 그곳에서 예쁜 식물이 자라게 하자. 내 어린 시절처럼, 등교하면 제일 먼저 식물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아이들, 물을 주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관찰 일기를 쓰는 아이도 있겠지. 잉꼬·앵무새를 교실에서 키우고 싶은 아이도 있을 것이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교실 밖에는 텃밭 상자를 만들어 반마다 다양한 채소를 가꾸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현대 뇌 과학은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감성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감성 능력은 정서 함양 외에도 창의성 등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적응 능력, 충동 억제, 대처 능력 등의 함양에도 이바지한다. 양림동은 여행자들의 감성 충전소이다. 양림동처럼 학교는 아이들의 감성 충전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교직원, 지역사회의 탐방율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따뜻한 감성이 풍겨올 때 피어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에 대부분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정 또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들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포함시켜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 ESG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운용 자산 규모가 원화로 약 1경 원에 달하며 국내 우수 대기업들의 대주주이기도 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투자기업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 등의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또 여러 기관 투자자들도 기업의 ESG 평가 결과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ESG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경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은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현대자동차도 ESG 경영을 위한 컨트론타워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세웠으며 많은 식음료업체 또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주요 제품의 용기와 포장지를 개선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 ESG는 기존 재무적인 가치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 운영 방식으로 탄소 중립, 친환경, 사회적 가치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ESG 경영이 기업만의 일은 결코 아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

기관의 ESG 관련 경영 지표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의 역할과 사명 역시 ESG 경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간 해 온 모든 것이 ESG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없지만 깨끗한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환경(E)을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살수차에 제어용수 3만 8000여 톤을 무상 공급하고, 광주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 전통시장 방역 봉사 등 활발한 지역사회(S) 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경영전략 TF팀' 운영, 인권 존중 릴레이 캠페인 전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전자공고와 협아 등 지배구조(G) 개선을 통해 열린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G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대안이다. 광주환경공단은 '재생 전기 100%'를 의미하는 'RE100'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 중립과 RE100 실현을 통해 탈탄소화를 이끄는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중심의 경영을 통해 ESG와 방향성을 함께하고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란 말이 있다.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원수, 올바른 지배구조로의 변화만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社說

전자발찌 관리 부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장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의 행방이 열흘 이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남성이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와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장흥군에 사는 A(50)씨는 지난 21일 장흥군 장흥읍 주거지에서 18km 떨어진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으로 달아난 뒤 여태껏 행방이 묘연하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A씨가 달아난 이후 장흥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지만 도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경우 활동 반경을 거주지 2km 이내로 제

한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A씨 도주 이후 이들이 지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들 배포해 능동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는 무려 70건에 이른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4847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17명이 넘는 인원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전자감독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한편 끊고 달아나더라도 신속히 붙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지자체 간 실시간 공조체제도 강화해야겠다. 여기에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경우 활동 반경을 거주지 2km 이내로 제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파국은 면했지만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는 한편 앞으로 협의체를 꾸려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던 '언론중재법 정국'은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까지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두 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두 명씩 모두 여덟 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의원들로부터 합

의안을 '사실상 추진받았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 정국이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론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파 사람은 없겠지만, 한편으로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와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일단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번 만큼 이번엔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0.84'.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뒤 꾸준히 감소 추세다. 1명 미만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혼인 건수도 줄고 있는 탓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2018년 전국합계출산율(0.98명)이 앞으로 두 꾸준히 이어질 경우, 한국 전체 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 명에서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광주는 100년 후엔 35만 명, 전남은 49만 명으로 줄어들어 양 지역 총 인구는 고작 84만 명에 그치게 된다. 지금 인구의 26% 수준이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와 인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100년 뒤에는 광주 광산구를 뺀 광주·전남의 모든 지역이 '지방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

다. 이러한 점을 예상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의 투입 예산(380조2000억 원)에 비해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걱정이다. 특히 문제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심각한 인구 불균형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지방 소멸 위기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및 수도권 집중 현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최근 광주시가 각종 출산·육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면 지금부터 부천시의 인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100년 뒤에는 광주 광산구를 뺀 광주·전남의 모든 지역이 '지방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